

# 『黃帝內經』發病理論의 意義에 대한 고찰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張祐彰\*

## An Inquiry into the Significance of Theory of Podiatry in 『Hwangjenaegyong(黃帝內經)』

Dep.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Kyunghee University  
Jang, Woo-Chang

In 『Hwangjenaegyong』, pathogenesis is explained based on theory of Yin and Yang. According to the theory, all environments surrounding us, physical and emotional both, are related to outbreak of diseases. This also reflects one of the major theories in oriental medicine, in which a human body is perceived as a correspondence to natural environment. In this theory, the main idea is to understand changes in the universe based on mutual correlations from within. This kind of perspective is easily criticized from scientific point of view. Whereas modern science pursue analytic thinking and objective information, the theories above seem rather vague.

However, from a different angle, through a characteristic perspective of oriental medicine, actual significance can be found in the theory. Many diseases result from one's intemperate living habits. Therefore, much prevention can be made by self-control. Also, once disease occurs, the essential step to treatment is to find cause in the living environment and regain balance. Natural cure will take its' course when living habits recover moderate pace and are back in harmony with the environment.

Key Words: Hwangjenaegyong, the primordial Gi, the three regions

### I. 緒論

子路가 죽음이 무어냐고 묻자 孔子께서는 아직 삶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고 답했다(敢問死, 曰未知生, 焉知死). 이는 현실의 일을 알고 실천하는데 노력하라는 말도 되겠지만, 다르게 말하면 죽음과

삶이 같은 이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四時가 갈마들며 生長收藏의 변화가 그침 없이 이어지듯이, 萬物도 生老病死를 거듭하며 天地間에서 변화하고 있을 뿐인데, 사람이 다만 生에 집착하느라 이런 큰 이치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때문에 狹隘한 나를 넘어 天地萬物과 生死를 함께 하고자 했던 聖人들은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치로 天地間에 바로 서서 사는 道理를 삼고자 하였다.

\* 교신저자 : 張祐彰,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2) 961-0735, jangchang@khu.ac.kr

陰陽論에 입각한 天人相應적 觀點에 의하면 사람

이 살아가는 이치와 병이 드는 이치는 별개의 것이 아니어서, 끊임없이 天地萬物과 함께 氣를 교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병도 환경에서 얻는다. 환경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제반 환경으로서 기후, 지역, 의식주 생활, 노동 등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칠정, 성생활 등의 심리적 환경을 아우른다. 『素問』의 「陰陽應象大論」, 「太陰陽明論」, 「調經論」 그리고 『靈樞』의 「百病始生」, 「邪氣藏府病形」 등에 보이는 『內經』의 發病理論은 天人相應과 同氣相求의 관점에 따라 인체 내외의 제 환경적 요인과 질병이 발생하는 경로 사이의 관련을 유기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天人相應論은 만물을 상호 간의 관련성에 입각하여 인식하는 음양론적 사유방법으로서 사물의 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을 목표로 한다. 때문에 『內經』의 발병이론은 正氣와 邪氣, 氣化와 分部를 중점으로 관련 지우는 유기적 논리를 전개한다. 이런 형식의 사유는 개별적인 사물에 대한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현대과학의 인식방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확실히 현대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內經』의 발병이론에는 거친 일반화에서 비롯되는 관념성과 도식성이라는 논리적 결함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의학 특유의 사유와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 볼 때 『內經』 발병이론의 실제적 의의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內經』의 발병이론이 지니는 이론적 특징과 그것이 지향하는 임상적 실천 그리고 그 학술적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우리에게 이 이론이 시사하는 의의를 재평가해보고자 한다.

## II. 本論

### 1. 이론적 특징

#### 1) 邪正과 發病

發病이란 正氣의 부족으로 邪氣가 침입하여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天地의 生長收藏에 응하여 살아간다. 그러므로 生長收藏을 저해하는 氣

인 邪氣에도 自然에서 오는 것이 있고 사람에서 오는 것이 있다.<sup>1)</sup> 자연에서 오는 사기는 風雨寒暑로 대표되는 기후의 이상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사람에서 오는 사기는 주로 飲食, 居處, 陰陽, 喜怒 등 人事의 不節에서 비롯된다.

대체로 사기는 음에서 생기기도 하고 양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양에서 생기는 경우는 풍우한서에서 얻고, 음에서 생기는 경우는 음식, 거처, 음양, 회노에서 얻습니다.(夫邪之生也, 或生於陰, 或生於陽. 其生於陽者, 得之風雨寒暑, 其生於陰者, 得之飲食居處, 陰陽喜怒.)<sup>2)</sup>

여기서 陰陽은 人身의 分部를 外陽內陰으로 나누어 보는 것으로서, 발병에 있어 사기와 인신의 부분 사이에 同氣相求의 원리를 따르는 일정한 상응관계가 존재함을 말한다.

인신의 부분을 음양으로 나누는 경우 크게 보면 外는 陽이고 內는 陰이며,<sup>3)</sup> 氣가 表를 주재한다면 形을 裏를 주재한다.<sup>4)</sup> 그러므로 風雨寒暑로 대표되는 자연의 사기는 表의 形을 傷하고 喜怒로 대표되는 사람의 사기는 裏의 氣를 傷한다.

하늘에는 사시오행이 있어 생장수장의 변화로써 한서조습풍을 생하고, 사람에는 오장이 있어 오기로 화하여 회노비우공을 생합니다. 때문에 회노는 기를 상하고 한서는 형을 상합니다(天有四時五行, 以生長收藏, 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藏, 化五氣, 以生喜怒悲憂恐. 故喜怒傷氣, 寒暑傷形.)<sup>5)</sup>

「陰陽應象大論」의 이 설명이 五神을 藏하여 氣化의 樞紐가 되는 五藏을 중심으로 발병 초기 인신과 사기의 상응을 表裏로 말했다면, 다음 「太陰陽明論」

- 1) 박찬국. 한의학특강. 집문당. 서울. 2002. p.112.
-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16.
-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0: 夫言人之陰陽, 則外爲陽, 內爲陰.
-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陰陽變動, 積傳爲一周, 氣裏形表而爲相成也.
-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3.

의 예문은 氣化를 운용하는 經絡을 중심으로 발병 초기 뿐 아니라 사기의 진행 경로까지 아우르는 外内の 상응관계를 말하고 있다.

양경은 천기에 속하여 외부를 주재하고 음경은 지기에 속하여 내부를 주재합니다. 때문에 양경이 흐르는 길은 기가 실하고 음경이 흐르는 길은 기가 허합니다. 그러므로 적풍이나 허사를 범한 경우는 양경이 사를 받고, 음식을 불절하거나 기거를 불시하는 경우는 음경이 사를 받습니다. 양경이 사를 받으면 육부로 들어가고 음경이 사를 받으면 오장으로 들어갑니다.(陽者, 天氣也, 主外; 陰者, 地氣也, 主內. 故陽道實, 陰道虛. 故犯賊風虛邪者, 陽受之; 食飲不節起居不時者, 陰受之. 陽受之, 則入六府, 陰受之, 則入五臟.)<sup>6)</sup>

陽은 動하여 상승과 발산을 주도하므로 인신의 陽部에는 氣가 實한데 비하여, 陰은 靜하여 하강과 수렴을 주도하므로 氣가 虛하다. 때문에 陽에 속하는 하늘의 사기는 陽經이 받아 府로 들어가고 陰에 속하는 사람의 사기는 陰經이 받아 臟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同氣相求의 원리에 따른 상응관계를 말한 것이라면, 다음 「陰陽應象大論」의 예문은 正氣의 부족이 심한 상태에서 邪氣의 성질이 바뀌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하늘의 陽邪가 인신의 陰臟과 상응하고 땅의 陰邪가 인신의 外形과 상응하며 사람의 사기가 中部를 가로막는 전도된 상응관계로 표현된다.

하늘의 사기를 감하면 사람의 오장의 해치고, 수곡의 한열을 감하면 육부를 해치며 땅의 습기를 받으면 피육근골을 해칩니다.(故天之邪氣, 感則害人五臟; 水穀之寒熱, 感則害於六府; 地之濕氣, 感則害皮肉筋脈.)<sup>7)</sup>

여기서 ‘感’이라고 표현한 것은 「皮部論」에서 “其入客於經也, 則感虛乃陷下.”<sup>8)</sup>라고 말한 것처럼 正氣

의 부족이 외부에서 邪氣를 받아들이는 조건이 됨을 지적한 것이다. 사기가 인신의 허에 감하여 내부로 들어오면, “重陰必陽, 重陽必陰.”<sup>9)</sup>이라고 하였듯이 성질이 반대로 변하게 된다. 때문에 極에 달한 陽邪는 陰으로 변해 下行하여 五臟의 眞陰을 상하고, 極에 달한 陰邪는 陽으로 변해 上行하여 形體의 陽氣를 상한다. 陰陽이 뒤섞인 水穀의 寒熱은 中部를 가로막아 升降을 不利하게 한다.

이상을 통해 발병이 이루어지는 초기 뿐 아니라 사기의 소재와 성질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기와 발병 사이에 同氣相求의 원리를 따르는 상응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2) 氣化와 分部

인신의 기화는 천지의 기화에 상응하며 기화의 형식은 升降出入으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질병의 발생과 변화 역시 升降出入의 氣化 위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기화라는 유동적인 기의 변화는 分部라는 인신의 구체적인 부위에서 이루어진다. 分部는 「陰陽應象大論」에서 “分部逆從, 各有條理.”<sup>10)</sup>라고 한 것으로서 인체의 각 부분이 人氣의 변화를 따르는 條理가 있음을 말한다. 기화는 오장의 조절 하에 경락의 활동으로 구체화되므로 기화와 分部의 관련은 크게 두 방면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첫째 경락을 중심으로 外内の 出入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 오장을 중심으로 上下의 升降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外內와 上下의 중심에는 오장의 精神이 자리하여 升降出入 전반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外内の 관점에서 보면 오장은 內가 되고 경락은 外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上下의 관점에서 보면 오장이 中이 되고 경락이 上下가 된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이를

1985. p.198.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3.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3.

11) 分部는 「皮部論」의 ‘皮有分部’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체의 각 부위 사이에 陰陽五行의 변화를 따르는 계통성이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관점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經絡과 관련해 볼 때 皮肉筋骨血脈 모두에 三陰三陽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112.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5.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합쳐 보면 인신은 外內上下에 中을 곁들인 ‘三部’를 體로 각 部가 陰陽의 用을 兼備하여 生命을 運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2)</sup>

삼부의 기는 각기 달라, 혹은 병이 음에서 일어나고 혹은 병이 양에서 일어납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희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장을 상하고 장이 상하면 병이 음에서 일어납니다. 땅의 청습한 기운이 허를 타고 침습하면 병이 하부에서 일어나고 하늘의 풍우가 허를 타고 침습하면 병이 상부에서 일어납니다. 이를 삼부라고 합니다. 사기가 음일함에 이르면 그 변화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三部之氣各不同, 或起於陰, 或起於陽, 請言其方. 喜怒不節, 則傷藏, 藏傷則病起於陰也. 清濕襲虛, 則病起於下, 風雨襲虛, 則病起於上, 是謂三部. 至於其淫泆, 不可勝數.)<sup>13)</sup>

인신의 上中下 三部를 나누는 기준은 관점에 따라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三部九候論」에 보이는 것과 위의 「百病始生」에 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三部九候論」은 목과 허리를 기준으로 삼부를 나누고 있다.<sup>14)</sup> 이것이 形體를 중심으로 본 것이라면, 「百病始生」의 위 인용문은 藏府經絡의 기화를 총체적으로

추구하였으므로 오장을 中에 놓고 형체를 外로 보고 있다. 이는 天地人 三才와 人身 上中下 三部가 상응한다는 관점 하에 사기와 발병의 관련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外의 上部는 天을 본받으므로 하늘의 사기를 받아 병이 들고, 外의 下部는 地를 본받으므로 땅의 사기를 받아 병이 들며, 오장의 中部는 人을 본받으므로 人事의 不節에 의해 병이 들을 지적인 것이다.

앞 장에서 예시한 「陰陽應象大論」이나 「太陰陽明論」, 「調經論」의 발병이론을 陰陽說로, 이 장의 발병이론을 三部說로 명명한다면, 陰陽說에서 天人으로 兩分되었던 사기는 三部說에서는 天地人으로 三分되고 있다. 風雨는 하늘에서 오는 輕淸한 사기를 말하며 淸濕은 땅에서 오는 重濁한 사기를 말하므로 삼부설은 음양설의 자연의 사기를 기의 淸濁에 따라 上下로 구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邪氣藏府病形」의 설명은, 天地의 사기를 받는 外의 경락을 上下로 나누고 사람의 사기를 받는 內의 오장을 中으로 보아, 三部와 陰陽의 體用을 겸비하여 보고 있다는 점에서 「百病始生」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上下部에서 다시 三陰三陽의 條理를 따르는 分部를 나누어 발병의 경로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구체적이다. 게다가 經氣의 순행경로와 穴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上部의 陽經은 얼굴로 사기를 받고 下部의 陰經은 四肢로 사기를 받음을 명시하고 있다.

의 조리를 따르는 分部가 있을 것이며, 五藏과 관련해 보면 五行의 조리를 따르는 分部가 있을 것이다. 각 分部로 표현되는 병증은 질병의 陰陽五行 성질을 파악하는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內經』이 거듭 역설하고 있다.

12) 「三部九候論」과 「百病始生」 등에 보이는 『內經』의 ‘三部’가 『周易』 三才論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중국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白凌志 등은 『易說卦』에서 “有天道焉, 有人道焉, 有地道焉, 兼三才而兩之故六, 六者非他也, 三才之道也.”라고 말한 것을 예로 들어 사람은 天地의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자연계 일원으로서 자연계의 영향을 받아 자연과 함께 하나의 거대한 계통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였다.(白凌志, 王敏. 『周易』의 三才統一觀與『內經』의 天人相應. 黑龍江中醫學院. 中醫藥信息. 1994(2).) 김만산은 三極과 三才 모두 ‘존재의 근원적 구조원리’에 있어서 ‘부동의 축’을 상징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三極과 三才를 부동의 축으로 하여, 그 안에서 陰陽五行의 생성변화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金滿山. 易學上 用語의 概念定義에 관한 研究(1). 충남대학교. 동양철학연구. 제17집.)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86.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81.

諸陽之會, 皆在於面. 中人也方乘虛時, 及新用力, 若飲食汗出, 腠理開而中於邪. 中於面, 則下陽明. 中於項, 則下太陽. 中於頰, 則下少陽. 其中於膺背兩脇, 亦中其經.

其中於陰, 奈何? 中於陰者, 常從臂胛始, 夫臂與胛, 其陰皮薄, 其肉淖澤, 故俱受於風, 獨傷其陰.<sup>15)</sup>

다음은 인신의 虛에 감하여 사기가 內部로 들어오는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서 앞 장에서 예시한 「陰陽應象大論」의 예문에 비해 더욱 복잡적이다.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36.

黃帝曰：邪之中人藏，奈何。岐伯曰：愁憂恐懼則傷心，形寒寒飲則傷肺，以其兩寒相感，中外皆傷，故氣逆而上行。有所墮墜，惡血留內，若有所大怒，氣上而不下，積於脇下，則傷肝。有所擊仆，若醉入房，汗出當風，則傷脾。有所用力舉重，若入房過度，汗出浴水，則傷腎。<sup>16)</sup>

이 설명을 통해 藏에 사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七情, 飮食, 外傷, 飮酒, 勞倦, 入房 등의 다양한 人事의 不節에 의해 특정 藏의 精氣가 상하고 그에 자연의 사기가 겹치는 이른바 重感의 형식으로 발병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 2. 임상적 의의

『內經』이 발병에 있어 인신의 虛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질병이 발생한 근본적인 조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현대에 유행하는 고혈압, 당뇨, 암 등 정기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많은 질병들은 평소의 양생과 깊은 관련이 있어, 결코 약으로만 치료되지 않고 반드시 적절한 생활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생은 『內經』 首篇인 「上古天真論」과 第二篇인 「四氣調神大論」을 위시한 많은 편들에 綱領과 節目이 자세하게 보인다. 百病이 모두 인신의 虛와 관련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養生의 요점은 「上古天真論」에서 말한 ‘恬淡虛無’<sup>17)</sup>에 있다고 할 수 있다. 養生의 이치가 마음을 비우는 데 있다면 修己의 이치는 자연의 이치를 아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치를 모르면 헛된 욕심이 나오게 되고, 헛된 욕심은 방종을 낳아 精을 고갈시켜 만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sup>18)</sup> 그러므로 修己와 養生 모두 결과적으로 마음 하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神明之心, 즉 精神이 광휘가 투명하게 빛나는 맑은 마

음이야말로 天地의 변화에 따라 一身을 편안케 하는 本體이다.

「百病始生」에 의하면 百病이 처음 발생할 때에는 喜怒不節은 藏을 傷하고, 風雨는 上部를 傷하고 清濕은 下部를 上하는 三部陰陽의 원리를 따르지만 邪氣가 淫泆하면 그 변화를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sup>19)</sup> 실제로 질병을 오래 앓은 경우 질병을 야기한 원인과 그에 의한 결과가 착중되어 病變이 다양해지고 病位가 복잡해져 병리적 증후를 표면적으로 관찰하는 일만으로는 병의 뿌리를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에 종종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하더라도 병리적 징후가 출현하는 선후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환자의 생활환경과 심리상태를 자세히 물으면 병의 始生에 있어 虛를 야기한 환경적인 조건을 발견해 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질병의 뿌리를 치료할 수 있다.

## 3. 학술적 영향

『內經』의 발병이론은 환경과 발병의 관련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임상적으로 養生을 통해 질병의 뿌리를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론적으로 三部陰陽의 體用을 견비하는 논리를 채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이론은 『金匱要略』의 三條說과 陳無擇의 三因說에 그 의의가 포착되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 金匱要略의 三條說

다음 『金匱要略』은 三條說은 『內經』의 三部를 이어 陳無擇의 三因說로 나타나는 病因學說 수립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sup>20)</sup>

夫人稟五常，因風氣而生長，風氣雖能生萬物，亦能害萬物，如水能浮舟，亦能覆舟。若五藏元真通暢，人即安和。客氣邪風，中人多死，千般痰難，不越三條：一者，經絡受邪，入藏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36.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11.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11: 今時之人不然也，以酒爲漿，以妄爲常，醉以入房，以欲竭其精，以耗散其真，不知持滿，不時御神，務快其心，逆於生樂，起居無節，故半百而衰也.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86.

20) 張光霽. 略論『金匱要略』病因說的歷史地位. 浙江中醫學院. 中國醫藥學報. 1997. 12(6).

府, 爲內所因也; 二者, 四肢九竅, 血脈相傳, 壅塞不通, 爲外皮膚所中也; 三者, 房室, 金刀, 蟲獸所傷. 以此詳之, 病由都盡.<sup>21)</sup>

內所因, 外皮膚所中과 房室, 金刀, 蟲獸를 셋으로 나누어 말한 것에 착안하여 이를 外因, 內因, 不內外因으로 三因을 확정한 陳無擇 三因論의 근거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sup>22)</sup>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 三條說은 病因에 따라 질병을 분류한 것이라기보다는 병위의 外內를 위주로 임상적으로 분류한 것에 가깝다. 血脈, 經絡, 藏府는 정확히 人身 外內 分部의 층차이다.<sup>23)</sup> 오장의 元氣가 通暢하면 사람이 無病하지만 오장이 虛하면 사기를 받아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內의 虛가 심하여 경락으로 받은 사기가 장부로 과급되는 重한 경우가 있고, 內의 虛가 심하지 않아 皮膚血脈 間의 外로만 사기를 받는 輕한 경우가 있다. 이상이 氣를 상한 경우라면, 房室, 金刀, 蟲獸 등에 의한 손상은 形을 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形이 손상되면 氣를 화생하는 근거가 취약해져 外內 모두가 병들 수 있으므로 별도로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三條說이 外內의 輕重으로 질병을 분류하고 있음은 다음 설명에서 앞의 논설에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설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若能養慎, 不令邪風干忤經絡; 適中經絡, 未流傳藏府, 卽醫治之. 四肢纔覺重滯, 卽導引, 吐納, 鍼灸, 膏摩, 勿令九竅閉塞; 更能無犯王法禽獸災傷, 房室勿令竭乏, 飲食節其冷熱苦酸辛甘, 不遺形體有衰, 病則無由入其腠理. 腠者, 是三焦通會元眞之處, 爲血氣所注; 理者, 是皮膚藏府之文理也.<sup>24)</sup>

養慎은 평소 양생을 잘하여 오장의 眞氣가 虛해지지 않도록 해야 함을 말한 것으로 百病이 모두 人事에서 비롯되는 虛와 관련된다는 『內經』의 발병이론

과 맥을 같이한다. 虛가 심하지 않아 사기가 外에만 있으면 약을 쓰지 않고 導引, 吐納, 鍼灸 등으로 치료한다고 하고, 사기가 오장에 미치는 경우는 장부로 들어가기 전에 즉각 약을 써서 치료한다고 한 것은 外內의 輕重에 따라 治法을 달리함을 지적한 것이다. 그 외 房室, 飲食 등의 不節은, 병을 앓는 경우 形을 衰하게 하여 병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자면, 三條說의 內所因은 오히려 三因說의 外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外皮膚所中の 경우 血脈으로 병이 옮겨 다니고 결과적으로 九竅를 폐쇄케 하며, 또한 치료에 있어서도 導引 등의 방법이 운용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七情으로 생기는 藏氣의 문란, 즉 內因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三條說은 병인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자연의 사기가 外部를 상하고 사람의 사기가 內部를 상한다는 『內經』 발병이론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질병의 치료에 있어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하고 양생을 강조한 『내경』의 사상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陳無擇의 三因說

한의학적 병인학설의 대체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 陳無擇 三因說의 골자는 外因-經絡-六淫, 內因-五藏-七情, 不內外因-無位-雜因의 형식으로 『內經』의 天人相應과 同氣相求의 관점을 계승한 것이다.<sup>25)</sup> 임상적으로 보았을 때 三因說의 특징은 病因의 진단적 감별에 있어 脈을 중시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脈經』 이래 세간에 널리 유포된 人迎氣口脈法을 진단에 차용하여 外內의 病因을 감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sup>26)</sup>

25) 陳言. 陳無擇三因方.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81. p.1(卷之二): 凡審病, 須先識名, 所謂中傷寒暑風濕瘟疫時氣, 皆外所因, 藏府虛實五勞六極, 皆內所因, 其如金瘡跌折虎狼毒蟲, 皆不內外. 更有三因備具, 各有其名, 所謂命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 學者不可不備.

26) 이런 관점은 李東垣이 內外傷의 감별에 있어 人迎氣口脈法을 중시한 것에 이어진다. 필자는 대한한의학회지 20(2)를 통해 '李東垣의 內外傷辨脈法'에 대해 고찰한 바 있으나 이때에는 陳無擇의 人迎氣口脈法을 알지 못하였다. 病

21) 張機. 仲景全書. 臺北. 集文書局. 1983. p.333.

22) 張再良, 楊文楫. 從『三因方』看『金匱要略』. 上海中醫藥大學. 中醫文獻雜誌. 2005(3).

23) 宋東眷. 試論『金匱要略』的發病學特點. 甘肅中醫學院. 甘肅中醫學院學報. 1997. 14(3).

24) 張機. 仲景全書. 臺北. 集文書局. 1983. pp.333-334.

『內經』의 三部說은 목적이 환경과 질병의 관련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있고, 『金匱要略』의 三條說은 목적이 질병의 깊이를 外內 分部에 따라 임상적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治法을 강구하는 데에 있었다. 그에 비해 三因說의 주된 목적은 三因의 틀로 질병을 분류하는 大綱을 삼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三因極一病證方論』이 內因類 질병, 外因類 질병, 不內外因류 질병의 三類를 줄기로 삼으면서도 한 病證의 원인으로 外因, 內因, 不內外因이 모두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다소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데에서 드러난다.

### III. 結 論

이상의 논의를 통해 『內經』 발병이론의 이론적 특징, 임상적 의의, 학술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음과 같이 결론을 요약한다.

1. 모든 병은 人事의 不節에서 비롯되는 人身의 虛를 조건으로 외부에서 邪氣를 받아 발생하며, 음양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發病에는 同氣相求의 원리를 따르는 일정한 형식이 존재한다.

2. 天地의 氣化를 따르는 人身의 氣化는 分部라는 구체적인 部位를 통해 이루어진다. 발병이 氣化를 따라 分部에서 구체화되는 형식을 개략적으로 말하면 上部는 天을 본받으므로 하늘의 사기를 받고, 下部는 地를 본받으므로 땅의 사기를 받으며, 中部는 人을 본받으므로 사람의 사기를 받는다.

3. 『內經』의 발병이론에서 환경과 발병의 관련이 강조되는 이유는 질병을 야기한 근본적인 조건을 생활에서 찾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시일이 오래되어 인과관계가 복잡해진 질병이라도 병증의 先後를 따져 人身의 虛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질병의

인의 감별과 관련하여 진무택 인영기구맥법의 의의는 별도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뿌리를 치료할 수 있다.

4. 『內經』의 발병이론은 『金匱要略』의 三條說과 陳無擇의 三因論으로 이어지며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內經』 三部說의 목적이 환경과 질병의 관련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있다면, 『金匱要略』 三條說의 목적은 질병의 깊이를 外內 分部에 따라 임상적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治法을 강구하는 데에 있으며, 陳無擇 三因說의 목적은 三因의 틀로 질병을 분류하는 大綱을 삼는 데에 있다.

음양론적 사유방법은 사물의 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을 목표로 한다. 때문에 『內經』의 발병이론에는 正氣와 邪氣, 氣化와 分部가 중형으로 엮여 있다. 의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개개의 분야를 살펴 구체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각각의 일에 임하는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대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일의 근본에 해당할 것이다.

### 參考文獻

〈논문〉

1. 白凌志, 王敏. 『周易』의 三才統一觀與『內經』의 天人相應. 黑龍江中醫學院. 中醫藥信息. 1994(2).
2. 王洪蓓, 傅延齡. 略論氣機升降學說. 北京中醫藥大學. 中國老年保健醫學雜誌. 2006. 4(1).
3. 金滿山. 易學上 用語의 概念定義에 관한 研究 (1). 충남대학교. 동양철학연구. 제17집.
4. 張光霽. 略論『金匱要略』病因說의 歷史地位. 浙江中醫學院. 中國醫學學報. 1997. 12(6).
5. 宋東春. 試論『金匱要略』의 發病學特點. 甘肅中醫學院. 甘肅中醫學院學報. 1997. 14(3).
6. 王慶國. 『金匱要略』“三因”非因論. 北京中醫藥大學. 北京中醫藥大學學報. 1999. 22(5).
7. 張再良, 楊文喆. 從『三因方』看『金匱要略』. 上海中醫藥大學. 中醫文獻雜誌. 2005(3).
8. 王雨農. 『三因方』對中醫臨床辨證的貢獻. 上海中

醫藥大學. 中醫藥臨床雜誌. 2004. 6(3).

〈단행본〉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3. 張機. 仲景全書. 集文書國. 臺北. 1983.
4. 陳言. 陳無擇三因方.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81.
5. 朴贊國. 黃帝內經素問注釋. 집문당. 서울. 2005.
6. 朴贊國. 韓醫學特講. 집문당. 서울. 2002.
7. 王新華 主編. 中醫基礎理論.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1.